

2021 전주공업고등학교 지속가능발전학교재정(SDSB)방향

2020. 11. 25.



전주공업고등학교

차 례

I. 들어가며	1
1. 문재인 정부 포스트-코로나 10대 미래교육 정책과제(안)	1
2. 2021년 교육부 예산안 개요	4
3. 목적 및 필요	5
 II. 재정 활동 방향	 6
1. 2020~2022 본교 규모 변화	6
2. 학교회계	9
가. 세입	9
나. 세출	12
 III. 나오며	 14

2021 전주공업고 지속가능발전학교재정(SDSB) 방향

행정6급 강양화

I. 들어가며

1. 문재인 정부 포스트-코로나 10대 미래교육 정책과제(안)

2020.10.5. 교육부는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안)을 공개했다¹⁾.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전 분야에 걸친 변화 가속화 및 확실성이 심화되고,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육 현장의 혁신적 변화를 기반으로 미래교육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사회 전반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집권 4년차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의 핵심을 압축·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안), 2020.10.5., 교육부

<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안) >

분야	추진 목표	10대 정책과제(안)
유·초·중등 교육	국가의 책무성, 현장의 자율성 강화	① 미래형 교육과정 마련 ② 새로운 교원제도 논의 추진 ③ 학생이 주인이 되는 미래형 학교 조성 ④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안전망 구축
고등·평생 교육	공유와 협력을 통한 혁신 지원	⑤ 협업·공유를 통한 대학·지역의 성장 지원 ⑥ 미래사회 핵심 인재 양성 지원 ⑦ 고등 직업 교육의 내실화 ⑧ 전 국민의 전 생애 학습권 보장
기반 구축	미래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반 구축	⑨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교육 기반 마련 ⑩ 미래형 교육 협력 거버넌스 개편

이 중 본교 특히 학교재정 및 교육행정과 관련있는 정책과제는 ① 미래형 교육과정 마련, ③ 학생이 주인이 되는 미래형 학교 조성, ④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안전망 구축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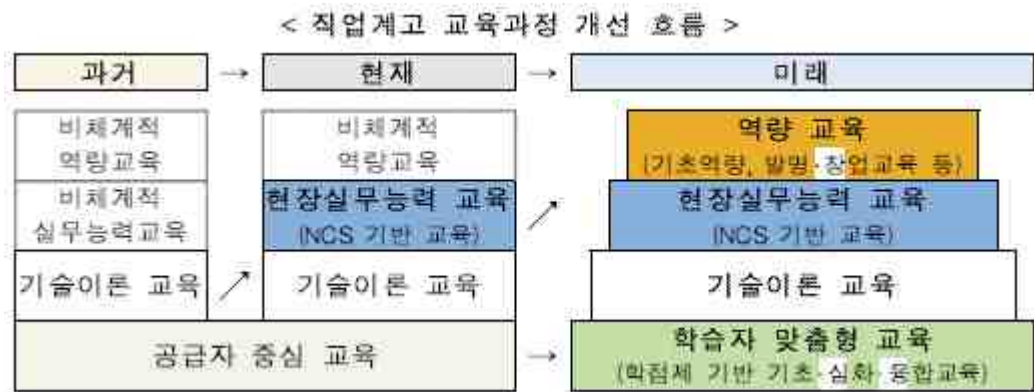
첫째, 미래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교수·학습 및 평가 개선, 교육과정 분권화·자율화, 원격수업 경험 반영 등 미래형 교육기반을 확대하고 특히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라 학생 스스로 진로를 설정하고 개척하는 고교학점제형 교육과정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미래형 교육을 위한 「2022 개정 교육과정」 개편을 본격 추진한다.

< 교육과정 개정 추진 방향(안) >



둘째, 고교 수업량 기준을 ‘단위’에서 ‘학점’으로 전환하고 학생 수요에 기반한 과목 개설, 수강 신청을 통한 개인별 시간표 편성 등 자기주도적 학습 경험 환경을 제공하는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도입²⁾을 차질없이 준비한다.

셋째, 진로기반 진단평가 등 학생별 맞춤형교육을 실시하고 학생 수요에 따라 기초·심화·융합교육을 제공하는 중등 직업교육 고도화를 위한 직업계고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넷째, 노후화된 직업계고 공간을 혁신하고 실습시설·기자재 개선 등 안전한 실습환경을 구축³⁾하며 공동실습소 환경 개선 및 운영체제 개편⁴⁾을 통해 직업교육의 공간적 저변 확대를 추진한다.

다섯째, 항목 중심의 교육급여를 개개인이 필요한 교육활동에 자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하고 원격교육 및 가정단위 교육활동 등 새로운 교육활동 수요 증가에 따른 다양한 활용가능성을 고려하여 교육급여 보장수준을 강화한다.

구분	2020년(기존)	2021년(개편)
지원 항목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지원 ※ 단, 고교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는 무상
연간 지원액	(초) 206천원, (중) 295천원, (고) 422.2천원	(초) 286천원, (중) 376천원, (고) 448천원

2) 본교 학점제 도입 시기: 시범연도(2021), 1차연도(2022), 2차연도(2023), 3차연도(2024)
 3) 2021년부터 5년 간, 노후시설 2,835동에 대해 18.5조원 투입. 학내 어디서나 디지털기기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융합 수업이 가능하도록 교실에 무선환경(Wi-fi) 구축
 4) (기존) 학교에서 관리하여 개방성 저하 → (개선) 교육청 관리를 통해 개방성 강화

2. 2021년 교육부 예산안 개요

교육부는 2021년도 예산안을 2020년도 예산(제3회 추가경정예산) 75조 7,317억원 대비 6,015억원 증가한 76조 3,332억원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⁵⁾.

< 2021년도 교육부 예산안(정부안) 개요 >

(단위: 억원, %)

구 분	'20년		'21년 정부안 (B)	증감(B-A)	
	본예산	제3회 추경 (A)		금액	증감율
■ 총지출	773,871	757,317	763,332	6,015	0.8%
(교부금, 유아교육특별회계 제외)	179,832	182,305	193,564	11,259	6.2%
○ 예산	721,555	705,001	706,273	1,272	0.2%
○ 기금	52,316	52,316	57,059	4,743	9.1%
【교육분야】	723,166	706,612	707,894	1,282	0.2%
·유아및초·중등교육	604,126	588,112	584,654	△3,458	△0.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53,722	535,112	533,221	△1,891	△0.4%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40,316	39,900	36,547	△3,353	△8.4%
·고등교육	108,331	108,286	111,379	3,093	2.9%
·평생·직업교육	9,383	8,906	10,516	1,610	18.1%
·교육일반	1,326	1,308	1,345	37	2.8%
【사회복지분야】	50,705	50,705	55,438	4,733	9.3%
·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	1,016	1,016	1,030	14	1.4%
·공적연금(사학연금기금)	49,689	49,689	54,408	4,719	9.5%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년 제3회 추경예산 53조 5,112억원 대비 **1,891억원 (0.4%)** 감소한 53조 3,221억원으로 나타났는데 17개 시·도 평균 **111억원** 꼴로 줄어든 셈이며 우리 도 공·사립 학교수 1,293교(유치원 포함)로 나누어 보면 교당 평균 **860만원** 꼴로 줄어든 셈이다. 한편 '20년 본예산에 비춰보면 55조 3,722억원 대비 **20,501억원(3.7%)** 감소한 것으로 17개 시·도 평균 **1,205억원** 꼴로 줄어든 셈이며 우리 도 교당 평균 **9,320만원** 꼴로 줄어든 셈이다.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은 ❶학교의 비대면 원격교육 운영 지원과 학습안전망 강화, ❷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람투자 등 한국판 뉴딜의 추진, ❸고교무상교육 고교 전 학년 시행 등 가계 교육비 부담 경감, ❹국가 혁신성장의 동력이 될 대학 경쟁력 강화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

5) 2021년 교육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교육부 보도자료, 2020.8.31.

교육부 설명을 보면 고교 무상교육을 조기 완성하고, 저소득층 대상 교육급여 지원을 확대한다⁶⁾. 현행 고2·3학년에 적용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21년 모든 고교 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하고,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2021학년도 직업계고 및 일반계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3학년 학생부터 중소·중견기업에 취업 시 지급받는 장려금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된다⁷⁾.

3. 목적 및 필요

첫째, 본교 지속가능발전 학교재정 전략(Sustainable Development School Budget Strategy)에 따라 2021학년도 학교 재정활동의 모멘텀으로 한다.

둘째, 본교 2021학년도 학교재정운영 기본방향으로 의제화(Agenda Setting)하고 2021학년도 본교 세입세출 (본)예산 편성(2021.2월중 심의) 과정에서 편성 중점 및 방향, 예산 편성(조정) 기준 등 의사결정 자료로 활용한다.

셋째, 본교 재정 활동 전반에 걸쳐 부문(기능)별 관행과 실태를 심층 분석하여 단순·경미하거나 미흡한 부분은 능동적·자율적으로 보완하고, 효과적인 교육과정 지원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신뢰받고 적극적인 책임행정 문화를 정착한다.

6) 고등학교 무상교육: (2020)6,594억원(고2·3) → (2021)9,431억원(고1·2·3)(+2,837억원)
교육급여 2020년 대비 학생당 지원단가 인상(안): (초)206,000원 → 286,000원, (중)295,000원
→ 376,000원, (고)422,200원 → 44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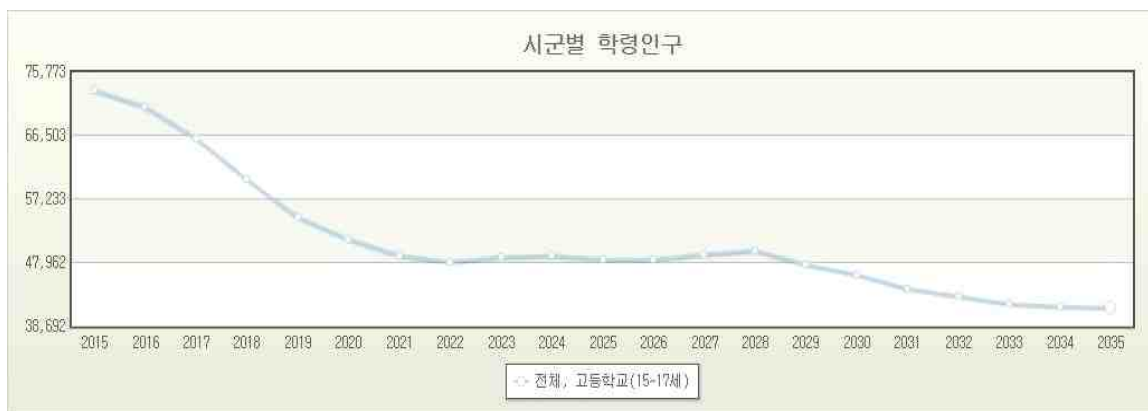
7) 고교취업연계장려금: (2020)1,107억원 → (2021)1,669억원 (+562억원)

II. 재정 활동 방향

1. 2020~2022 본교 규모 변화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 검토와 관련하여 반드시 살펴 볼 거시지표는 본교의 향후 **학교규모 변화 양상**이다. 전라북도 통계⁸⁾에 의하면 고등학교 학령인구(15세~17세) 장기 추세는 아래 차트와 같다.

< 전라북도 고등학교 학령인구(15~17세) 변화 >



(단위: 명)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비고
학령인구	70,845	66,071	60,108	54,607	51,409	49,016	
증감(비율)	△4,774(-6.7%)	△5,963(-9.0%)	△5,501(-9.2%)	△3,198(-5.9%)	△2,393(-4.7%)		

그래프는 2015년 이전부터 2021년까지 전라북도 고등학교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특히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2년간은 9%P가 넘는 감소율을 보이고, 3년 주기로 10,000명에 육박하는 숫자가 들어드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한편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3년의 평균 감소율은 8.3%P로 나타났는데 교육부 산하 통계기관 자료를 토대로 추정해 본 아래의 향후 본교 학생 수 감소율(8.6%P)과 비교해도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8) 전라북도통계시스템, <http://stat.jeonbuk.go.kr>, 통계DB, 시군 장래인구 추계, 시군별 학령인구

< 본교 학생수 변화 >

(단위: 명)

학년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비고
학생수	1,142	1,137	1,074	952	871	797(추정)	
증감(비율)	△5(-0.4%)	△63(-5.5%)	△122(-11.3%)	△81(-8.6%)	△74(-8.6%)		

※ 출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교알리미⁹⁾

위의 자료 역시 최근 4년간(2016~2019) 학생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감소 폭이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2017: 0.4% → 2018: 5.5% → 2019: 11.3%) 최근 3년(2017~2019) 평균 감소율(8.6%) 적용 시 2021년 본교 전체 학생수는 800명 이하로 내려갈 전망이다.

한편 학생수 변화에 따른 학급수의 변화 양상은 아래와 같다.

< 본교 학급수 변화 >

(단위: 학급)

학년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비고
학급수	41	41	41	41	40	39	38	

국가적 학령인구 급격한 감소로 본교 도내 신입생 모집도 한계에 다다른 실정임을 감안 교육감 승인과 학칙 개정 등을 거쳐 본교 학급수를 2020학년도부터 향후 3년간 단계적으로 1학급씩 감축하게 된다¹⁰⁾. 향후 3년간 평균 학생수 감소 63명, 감축 학급수(41 → 40 → 39 → 38)를 고려한 학교기본운영비 감소분은 아래 표와 같다.

< 향후 3년간 학교기본운영비 감소분 >

(금액단위: 천원)

학년도	2020	2021	2022	기준단가
학급경비	3,734	3,734	3,734	3,734
학생경비	14,049	14,049	14,049	223
감소금액	17,783	17,783	17,783	

9) <https://www.schoolinfo.go.kr/>, 학교검색(전주공업고) → 학교현황(2016-2019)

10) 전주공업고등학교규칙 제7조(2019.8.20., 심의·의결)

현재로부터 이전 3년의 학생수 감소의 평균치인 63명에 학생당 단가를, 향후 3년에 걸쳐 감축되는 학급수 1에 급당단가를 각각 곱해 합산한 금액이 전년대비 기본운영비 감소금액이 되고, 이는 『2020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p.110)』에 나온 학교기본운영비 배분 기준(공업계고)에 근거했다.

요컨대 본교는 사실상 뚜렷한 대책이 없는 학생수·학급수 감소라는 학교유지의 난제에 부딪쳐 당장 내년부터 해마다 17,783천원, 내리 3년 동안 총 53,349천원의 운영비가 없어지는 셈이다. 이는 단위학교 기본운영비가 국가 교육 예산의 증가와 구조적으로 비례할 수 없다는 증거이자 학교 유지·운영을 위한 독립재원 확보의 필요성과 어려움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2. 학교회계

가. 세입

(금액단위: 천원)

장	관·항·목	2017	2018	2019	2020	비고
이 전 수 입	국고보조금	168,000	180,520	169,000	683,565	
	기초지자체전입금	95,993	51,977	36,000		
	교특회계전입금	4,543,313	4,822,573	5,000,317	5,664,469	(전입금)6,648,237 (운영비)1,301,048
	발전기금전입금	22,148	5,700	8,975	14,323	
	타학교회계전입금	138,480	142,300	91,800		
	기타공공지원금			573,253	83,890	
	기타민간지원금	69,544	128,503			
자 체 수 입	학교운영지원비	234,956	219,250	196,602	362,022	(전입금)362,022
	급식비	897,996	928,892	859,414	608,064	(전입금)336,454
	방과후학교활동비	144,571	84,080	72,892	57,558	(전입금)57,558
	현장체험학습비	125,193	145,943	149,077	66,608	(전입금)66,608
	졸업앨범비	17,476	17,083	16,608	15,750	
	교과서비	78,019	74,274	63,439	85,873	(전입금)67,549
	기숙사비	99,437	102,315	96,596	99,121	(전입금)11,077
	교복구입비	69,966	77,916	91,200	82,500	(전입금)82,500
	운동부운영비	162,000	257,540	290,463	253,400	
	기타수익자부담비		1,200			
	행정활동수입	201,857	37,125	80,284	44,421	
기 타 수 입	순세계잉여금	79,557	87,459	206,769	166,033	
	정산재원사용잔액	4,798	43,948	94,015	46,268	
	이월사업비	136,330	311,944	51,251	142,720	
계		7,289,634	7,720,542	8,147,955	8,476,585	(10월말 기준)
변화율		430,908(5.9%)	427,413(5.5%)	464,433 / 328,630	5.7%적용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3 회계연도 세입 결산 결과 2017년에 비해 2018년에 5.9%, 2018년에 비해 2019년에 5.5%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 평균 5.7%를 적용할 경우 2020년 세입규모는 2019년보다 4억64백만원이 늘어 총세입 86억12백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10월말 기준으로 84억76백만원을 기록하고 있음을 감안할때 적어도 84억원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본운영비는 학교 재정 독립의 근간이다.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이듯이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중 기본운영비는 학교예산회계의 핵심이다. 기준일자(매년 3월 1일)의 학교급, 학급수, 학생수를 정량화하여 표준적으로 개별 학교의 경비를 산정한다.

(금액단위: 천원)

항목	2017	2018	2019	2020	비고
학급수	41	41	41	40	
학생수	1,141	1,074	961	877	
기본운영비	1,193,902	1,274,240	1,296,469	1,301,048	경상운영비 포함
변화율	80,338(6.7%)	22,229(1.7%)	4,579(0.3%)		
경상운영비	70,726	105,726	83,000	123,319	공동실습소 경비 유무
학교당 경비	716,037	716,287	732,945	718,727	
학급당 경비	153,754	153,754	153,094	149,360	
학생당 경비	254,443	239,502	214,303	195,571	

※ 출처: 예산과-8614(2017.7.27.), 예산과-8715(2018.9.21.), 예산과-5423(2019.5.24.), 예산과-5621(2020.5.8.)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본운영비 총액은 해마다 증가하고는 있으나 증가폭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2019년 대비 2020년 학교당 경비 △14,218천원, 학급당 경비 △3,734천원, 학생당 경비 △18,732천원 계36,684천원이 줄어든 반면 공기청정기 운영비, 냉난방기 전기요금 지원 등 기본운영비에 포함된 경상운영비가 40,319천원 늘어난데 힘입어 전체적으로 0.3%p(4,579천원) 증가했다.

한편 목적사업비는 순수한 기본운영비 이외의 모든 세입¹¹⁾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는 교특회계전입금 중 학교기본운영비를 제외한 목적사업비만을 논하기로 한다. 본교 교특전입금 중 목적사업비 비중은 2017년 73.7%, 2018년 73.6%, 2019년 74.1%로 나타나 학교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금년도는 10월말 기준으로 추정했을 때 작년도(2019)보다 16억 43백만원이 급증하여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걸로 보이는데, 이는 전체 교특전입금의 80%를 웃도는 것으로 가장 큰 원인은 제55회 전국기능경기대회 20억여원 지원 예산과 코로나19 방역 관련 목적 지원금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1) 국고보조금(국가 및 산하기관), 전입금(지자체, 교특회계), 기타이전금, 수익자부담금(특정목적) 등 학교장의 배타적 예산편성권이 제한받는 성격의 재원

(금액단위: 천원)

항목	2017	2018	2019	2020	비고
교특전입금	4,543,313(100%)	4,822,573(100%)	5,000,317(100%)	6,648,237(100%)	
기본운영비	1,193,902(26.3%)	1,274,240(26.4%)	1,296,469(25.9%)	1,301,048(19.6%)	
목적사업비	3,349,411(73.7%)	3,548,333(73.6%)	3,703,848(74.1%)	5,347,189(80.4%)	
변화율	198,922(5.9%)	155,515(4.4%)	1,643,341(44.3%)		

요컨대 학교기본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학생수 감소라는 불가항력의 절대요인으로 인해 서서히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 학교경영의 자율성과 독립성 면에서 상대적으로 구속력이 강한 목적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결국 앞으로의 학교 경영은 필요한 기본적인 재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직성 경비에는 재정압박이 점차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목적사업을 추진하는 담당자(교사)와 예산집행 부서 간(사업부서⇔행정실)의 운용 스킬과 소통 능력, 그리고 한층 강화된 책임성이 요구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나. 세출

(금액단위: 천원)

목그룹	목·세목	2017	2018	2019	2020	비고
인건비	무기계약직	418,807	507,452	482,138	390,456	
	기간제교원	92,147	117,773	118,967	155,110	
	기간제직원	89,395	79,645	173,581	201,451	
	학교운영지원수당	81,906	83,843	89,210	88,260	
운영비	일반수용비	539,037	443,344	512,569	2,203,549	
	운영수당	451,289	489,275	514,200	586,839	
	전기요금	178,812	177,378	171,833	170,965	
	상하수도료	98,919	106,808	96,730	89,942	
	연료비	39,818	26,872	34,853	37,785	
	기타공공요금	19,541	17,784	19,153	26,915	
	급식재료비	619,946	656,181	604,287	656,507	
	여비	137,170	154,900	103,663	103,167	
	교직원복지비	14,597	14,360	15,104	15,993	
	맞춤형복지비	1,600		3,025		
	우유대금	15,426	12,950	15,663	18,060	
	교육운영비	1,488,793	1,526,610	1,583,468	1,556,267	
	학습준비물	12,682	10,975	6,957	5,700	
	학생복지비	18,320	22,289	17,450	19,429	
	학생지원금	1,658,986	1,856,213	1,837,544	254,507	
	법정부담금	22,217	16,424	44,171	63,115	
	일반업무추진비	12,700	18,008	17,282	17,200	
	직책업무추진비	4,044	4,044	4,044	4,008	
	목적사업업무추진비	41,809	31,829	32,228	56,126	
자산 취득비	시설비		203,654	470,029	410,854	
	시설사업적립금					
	비품구입비	774,756	737,028	725,779	1,134,901	
	도서구입비	8,776	8,965	10,150	10,200	
기타	예비비					
	반환금	4,790	43,932	88,856	47,068	
계		6,846,283	7,368,536	7,792,934	8,324,374	
변화율		522,253(7.6%)	424,398(5.7%)	531,440(6.8%)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3 회계연도 세출 결산 결과 2017년에 비해 2018년에 7.6%, 2018년에 비해 2019년에 5.7%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 10월말 기준으로 세출예산 현액을 세출 결산액으로 가정했을 때 2020년 총 세출은 2019년보다 5억31백만원이 늘어난 83억24백만 여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사상 최초로 **80억원을 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총 세입과 총 세출이 통계적 예측과 거의 일치하게 된다면 회계연도 종료 시점에 학교회계 집행 차액은 약 1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세입편에서 학급수·학생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입금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 **제55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라는 매우 특별한 이벤트를 언급했는데 같은 이유로 세출에서는 운영비(일반수용비) 항목에서 16억90백만원이 급증했다. 또한 금년 상반기 무기계약직(청소원) 1명이 본교에 증원되어 채용함에 따라 관련 예산과 함께 인건비가 46백만원 가량 늘어났다. 한편 자산취득비 중 **비품 구입비**는 2017년 대비 2018년 37백만원 감소하고 2018년 대비 2019년 다시 11백만원 감소했다가 올해는 무려 4억9백만원 정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역시 전국기능경기대회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추세라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25억97백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비품구입에 집행한 것으로 **기자재, 교재·교구 등 물품 및 재산관리를 관계 법령 절차에 따라 이행·관리하고 있는지 교원**의 면밀한 사전·사후적 주의¹²⁾가 필요해 보인다.

12) 물품수급관리계획 등 적절한 행정절차 이행과 불용품 처리, 물품대장 정리 등 모니터링

III. 나오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본교 전반적인 재정활동 상황을 2017년부터 2020년 예산·결산까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때로는 통시적·거시적 관점에서 자료들을 검토·분석해 보았다. 2019년도에 총세입 80억 돌파에 이어 금년에는 총세출도 80억을 넘어서 명실공히 **학교총예산 80억 시대**를 본격 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학교규모 축소는 빅뱅처럼 팽창하여 온 학교재정을 조만간 급격한 내리막길로 접어들게 할 것이 분명하다.

본교는 2019년 9월 지속가능발전 학교재정전략(SDSB)을 선언했다¹³⁾. SDSB의 3대 핵심가치는 발상의 전환, 변화와 혁신, 성과(목표)관리이다. 학교재정활동 분석보고서¹⁴⁾, 지속가능발전 학교재정전략¹⁵⁾, 행정재산(학교매점) 사용·수익 허가 운영을 위한 보고서¹⁶⁾, 2020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 기본방향¹⁷⁾, 2020 학교회계 유희자금 세입증대(환류) 방안¹⁸⁾, 포스트 코로나-19 학교재정 운영 전략¹⁹⁾ 등 지난 1년여 동안 본교 학교재정활동의 밑바탕은 SDSB였다.

우리는 감염병 대유행이라는 매우 특별한 시대를 맞이했다. 전문가들은 이 상황이 언제 종식될지와 이후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에 대해 자신있게 피력하지 못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앞으로의 삶과 사람들의 생각·행동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질 거라는 점이다. 당연히 교육과 관계된 제도와 환경, 기대와 책임도 변화와

13) 전주공업고등학교-13052(2019.9.3.)

14) 전주공업고등학교-11088(2019.7.22.)

15) 전주공업고등학교-13052(2019.9.3.)

16) 전주공업고등학교-14305(2019.9.25.)

17) 전주공업고등학교-14812(2019.10.2.)

18) 전주공업고등학교-2719(2020.3.4.)

19) 전주공업고등학교-5297(2020.5.11.)

혁신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당장 그런 징후가 학교 재정 환경에 나타나고 있다.

보고서를 마치기 전 교직원들에게 학교 재정 활동에 있어 2가지를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사업계획(교육과정 수립)-예산편성-예산집행의 학교재정활동(또는 교육 활동) 전 과정에서 타성적인 전철답습 관행 혁파, 이중·중복 투자 경계, 비경제 효과 및 비효율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 제거 등 사업담당자들의 혁신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부서-예산(집행)부서 간의 긴밀한 정보공유와 의사소통이 필수적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둘째, 회계관계 공무원들의 소관 업무에 대한 전문성 신장과 유기적 팀웍을 통한 성과창출을 위해 자기주도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학교자체 사업, 국고지원 사업, 지자체 및 민간보조 사업, 발전기금 집행 등 다양한 재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절차 이행여부, 집행(계약)방법 적정결정, 사업시기·물량·규격·각종 조건 등 사업목적에 맞는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을 숙지하고 철저한 검토 분석이 끝난 경우에는 공정하고 적극적인 마인드로 행동해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변화하는 교육의 패러다임은 학교의 모습을 바꿀 것이다. 변화하는 세상(a changing world)·도전의 시대(an age of challenge), 학교의 지속가능발전 코드는 바로 혁신(innovation)이다.